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www.kccworld.co.kr

문화일보

Come on~
my car

오토세이버리스
카드로 결제하고 캐쉬백과
오토포인트로 돌려받자

자동차 금융의 대표이름 **현대캐피탈**
문의: 080-3770-114

석간 www.munhwa.co.kr

대표전화 (02) 3701-5114

THE MUNHWA ILBO

제 3407 호 * 3판

2002년 12월 20일 금요일



盧당선자 내외신 회견 3	민주·한나라 표정 8
정치권 대변화 예고 4	각계인사들의 바람 10
도을의 '현장속으로' 5	전문가 긴급좌담 11



노무현은 누구인가 12	재계 희망과 전망 16
노무현 스타일·인맥 13	'盧노믹스'의 과제 17
해외 전문가 반응 14	승인·패인·표분석 28



개표현장 이모저모 29	두 후보 고향 표정 33
시도별 득표분석 30·31	20·30대 영파워 실체 34
16대 대선 전국표정 32	'보통사람'들의 소망 35

“7천만 대통합시대 시작됐다”

노무현 16대 대통령 당선 첫회견

“국민수준에 맞게 사회시스템 개혁” 48.9% 득표... 57만표차 이회창 눌러

■ 노무현 16대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7000만 온겨레가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원칙과 신뢰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제 정치와 행정, 경제, 언론, 법조 등 사회 시스템을 높은 국민의식 수준에 걸맞게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그것(개혁)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나와 차기정부의

사회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사업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새정부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 정권인수 활동을 통해 현정권의 임기말까지 국정운영에 어떤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유능한 인재들을 용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인수위원장으로는 김원기 선대위고문과 정대철 선대위공동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북한 핵문제로 드리워진 한반도

다”며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전통적인 한·미간의 우호동맹 관계는 21세기에도 더욱 성숙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한·미관계는 정부차원을 넘어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더욱 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또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등 한·미간의 현안에 대해

의 입장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후보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국 244개 개표구별로 진행된 개표결과 1201만4277표를 얻어 48.9%의 득표율을 기록, 1144만3297표로 46.6%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57만980표 2.3%포인트차로 따돌리고 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95만7148표(3.9%)를 얻어 3위를 차지했고, 이어 하나로 국민연합 이한동 후보 7만4027표(0.3%), 호국당 김길수 후보 5만1104표(0.2%), 사회당 김영규 후보 2만2063표(0.1%)의 득표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개표는 초반부터 이, 노 후보가 45~50%의 득표율을 유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대접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개표 초반엔 이 후보가 최대 5% 포인트까지 노 후보를 리드했



34103